

저도 페미니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청소년 성평등교육 라디오 <이어달리기> 제작자의 각성기

글. 이자형 EBS 라디오 PD



35살 이전에 결혼 못 하면 영원히 못 한다!

2015년 1월 19일. 잊을 수 없는 내 인생 최대 행운의 날짜는 바로 그토록 염원하던 방송국 PD로서의 입사일이다. 대학원생이었던 나는 오로지 EBS만의 입사 준비를 위해 휴학을 신청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민주적이고 진취적인 방송국, EBS! 이 회사에 입사하길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꿈꿔왔던가? EBS의 모든 방송을 섭렵하고 한 회사의 연보와 관련된 기사를 외우고, 책을 찾아보며 한 회사만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했고, 결국 PD라는 직함으로 당당하게 입사 허락을 얻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입 PD들을 축하하는 자리로써 선후배 동기들이 함께 모여 서울 근교 지역으로 MT를 갔다. 룰루랄라 다 같이 즐겁고 평등하게(?)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한 방에서, 은퇴를 곧 앞둔 어느 선배가 여자 신입 PD들에게만 할 말이 있다며 앞으로 불러 모았다. 아직 선배들은 높고 넓은 하늘같이만 한데 하찮은 먼지 같은 내가 실수라도 할까 싶어 모든 행동에 신경이 곤두서 있던 우리들은 조심조심 모여 그 선배 앞에 앉았다. 그 선배는 방이 떠나가라 큰 목소리로 외쳤다.

“여자 PD는 35살 이전에 결혼 못 하면 평생 못한다! 바로

저 언니들처럼 말이야! (손가락으로 방 안의 다른 여자 선배들을 가리킨다) 그러니 지금 열심히 ‘오픈 마인드(?)’로 남자 많이 만나고 다녀야 한다~”

차마 그분이 사용한 너무 진취적인 표현을 그대로 인용할 수가 없어 우리의 사회문화적 수준에 맞는 표현으로 번역하였음을 감안해달라. 그때 우리 모두 즉각적으로 ‘잘못들은 것이겠거니’란 생각이 들 정도로 높은 수위의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것이 방송국의 미래여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 사고의 틀을 확장시켜준 그분께 감사 드린다.

그 이후의 삶에도 크고 작은 흥미로운 에피소드들이 이어졌다. 어느 선배는 나를 “공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에 대해 항의하자 후배를 아끼는 마음을 표현도 못 하나, 서운하다, 다신 연락하지 않겠다는 분도 계셨다 (나를 아끼는 선배에게 상처를 준 것인가 정말로 죄송한 마음이 들어 며칠 밤을 뒤척였다). 간간이 “PD치고 예쁘네”라는 감사한 칭찬(?)을 듣기도 했다.

여자 PD라는 이상한 존재

나는 “여자”이자 “PD”이기 때문에 수시로 정체성 혼란을 겪었다. 수십 년간 통계적으로 방송국은 남초 사회였고 여성은 소수였기 때문에 저 두 단어는 상호 모순적으로 여겨

졌다. 여기서 여성이 살아남는 법은 둘 중 하나가 된다. 남성에게 없는(?) 상냥함과 따뜻함, 섬세함을 지닌 부드러운 피디가 되거나, 남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칠고 카리스마 있는 피디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나다움”이 있을 자리는 없었다. 학창 시절 수학, 과학을 좋아했고, 컴퓨터 게임 중독자였으며, 대학에선 심리학을 전공해 괴상한 통계에만 빠져 살았던 상당한 너드형 인간인 나에게 “애교”나 “카리스마”가 있을 리는 만무했다. 나는 선배들로부터 어쩔 땐 애교가 너무 없다고, 또 어쩔 땐 카리스마가 너무 없다고 수많은 지적을 들었다. “프로페셔널”한 피디가 되고 싶었던 나는 팀에 따라 발언기를 하기 시작했다. 내가 애교 있는 조연출이길 바라는 팀에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장착했고, 카리스마가 있길 바라는 팀에서는 일을 하며 소리를 지르거나 걸출한 욕을 내뱉기도 했다. 정체성과 관련하여 혼돈의 카오스가 폭발하기 시작했다.

“나는 누구인가?”

빨간 약을 먹은 게 아닙니다. 먹힌 겁니다.

페미니즘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본 적이 없었고 따라서 제대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대학교 때 저명한 프로파일러인 이수정 교수의 <범죄심리학>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너무 많은 여성이 맞거나 죽고 있고, 이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자리 잡은 문화적 불평등에 기인한 것이라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를 실질적인 여성주의적 문제로 연결시키진 못했다. 오히려 페미니스트들은 너무 피곤하고 예민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 일부였던 것 같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갑자기 강남역 살인사건이 터졌다. 많은 여성이 분노하였고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수많은 여성의 분노 분투의 목소리에 함께 동기화되면



강남역 살인사건 추모 포스트잇



여성인권에 대한 각성을 영화 매트릭스에 비유해 소위 빨간약을 먹었다 표현함

서, 어린 시절 겪었던 크고 작은 성희롱과 성추행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와 겪은 여러 가지 괴상한 시선 또한 분명한 성차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강남역 10번 출구에 붙여진 포스트잇처럼 여러 기억과 경험 속에 흩어져있던 수많은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해 나는 대한민국 최초의 페미니즘 방송인 <까칠남녀>의 조연출로 배정받았다.

타의 반, 자의 반으로 여성주의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방송을 통해, 책을 통해, 영화를 통해 페미니즘을 흡수하였다. 여성과 남성이 존재론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이 당연한 사실이 왜 아직 이 사회에 정착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커다란 의문점이 들었다.

“왜 아직도 성평등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 않지?”

“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러면 한남이냐?”

2019년, 나의 바람 7할, 당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장님의 러브콜 3할로 라디오부로 인사이동을 했다. 우리 부장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전사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마당 발이자 TV와 라디오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멀티형 PD이자,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마음, 뛰어난 직감과 개그맨 뺨치는 유머 감각의 소유자이다. 당시에 우연히 나와 연배가 비슷한 김정재 PD가 함께 TV 쪽에서 넘어왔는데 수많은 선배들이 그랬던 것과 달리 부장님은 우리(두 여자 PD)의 외모나 옷차림, 스타일에 대해 단 한 번의 칭찬도, 지적도 하지 않았다(그 후 그는 누구에게나 외모에 대한 평가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일터에서 중요한 건 업무 능력이기 때문에 더더욱 외모 얘길 꺼내지 않는다고 했다. 그가 딱 한 번 나의 옷차림에 대해 멋지다고 한 적이 있는데, 바로 내가 지장사 온라인몰에서 파는 스님 옷을 입고 출근했을 때였다). 그는 우리에게 틈만 나면 이런 질문을 했다. “나 이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러면 한남이냐?” 장난조로 시작한 질문은 몇 시간짜리 단독방 토론으로 이어지곤 했다. 그는 기꺼이 두 젊은 여자 피디의 이야기를 듣고 수용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 사람 밑에서는 페미니즘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되겠다!’

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김정재 PD 또한 성평등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의기투합하기로 했다. 어디에서도 하고 있지 않은 성평등 교육 방송을 만들자! 왜냐면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국교육 방송의 직원이니까!

페미니즘

그간 알게 모르게 성차별의 발언과 행동을 일삼았던 선배들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그중에는 정말 우리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언행도 있을 것이다. 다만 그들은 성차별을 하지 않을 기회를 갖지 못했을 뿐이다. 이들이 학창 시절 올바른 젠더교육을 받았더라면 어땠을까?

많은 사람은 명백히 눈으로 보이는 법률상의 차별, 명백한 성범죄만이 중요한 성차별이며 그 외 일상에서 이뤄지는 미미한 차별들은 그렇게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자만큼이나 무심히, 무던히, 오랫동안 쌓여가는 미세차별부터 타파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영 성평등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한 이유이다.

그러나 내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 자격이 있을까? 나 또한 생각 없이 혐오와 차별의 말들을 수없이 내뱉기도 했고, 내가 그러한 차별을 당했을 때 용기 있고 현명하게 대응하지도 못했다. 나는 나 자신을 검열했다. 하지만 여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당분간은 어디에서도 시작하지 않을 것 같았다. 게다가 비록 나에겐 완전한 자격이 없지만 다른 스태프들과 전문가들, 출연자들의 힘을 그러모으면 불가능할 것이 없어 보였다. 이 과정에서 같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김정재 PD와의 연대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힘이 되었다(나도 그런 존재였길 바란다).

그러나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고작 PD 두 명, 작가, 조연출 이렇게 네 명이 모였을 뿐인데 의견이 좀처럼 수렴되지 않았다. 각자의 페미니즘 체화의 정도, 프로그램 수위(?)에 대한 생각, 원하는 타겟층이 모두 달랐다. 일단 ‘페미니즘’이란 타이틀을 걸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도 오랜 설전이 있었다. MC를 섭외하기도 쉽지 않았다. 낙인이나 다름없는 ‘페미니스트’라는 이름을 걸고 활동하는 인사를 찾기 어려

웠기 때문이다. 3개월간의 고통스럽기도 즐겁기도 했던 분투 끝에 프로그램의 윤곽이 나왔다.

혐오와 차별에 반대합니다! 청소년 페미니즘 프로그램 <이어달리기>

손수현 배우와 싱어송라이터 안예은 두 MC가 이끄는 이어달리기는 여성주의적 시각을 바탕으로 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차별을 들추어내고 함께 이야기해보는 토크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들이 보낸 사연을 가지고 주제에 따라 전문가 게스트를 초대해 심도 깊은 수다를 떠다.



손수현, 안예은의 <이어달리기>

그동안 이어달리기는 1화. 요즘여자 요즘남자 따로 있나(여성성과 남성성), 2화. 이렇게 생기면 기분이 조크든요, 3화. 교과서 새로고침(여성혐오 문학작품 살펴보기), 4화. 암마 니 꿈은 뭐니(여성의 꿈과 진로), 5화. No More #Me too(미투 운동), 6화. 엄마는 왜?(가부장제와 모성), 7화. 슬기로운 슬릭 탐구 생활(페미니스트 래퍼 슬릭 인터뷰), 8화. 연애 그것이 알고 싶다(10대의 연애), 12화. 여성의 몸 - 근육편, 13화. 언어에 성별이 어딤어(언어에 나타나는 성역할), 14화. 귀어 이야기-유부녀 레즈비언, 15화. Hey! U-Gyo-Girl(내안의 유교걸 내보내기), 17화. #My Body My Choice(낙태죄 폐지), 18화. 여성의 몸-생리, 19화. 요즘작가 정세랑, 20화. Life Goes On Beyond The School(학



이어달리기 유튜브 썸네일

교 밖 청소년), 21화. 학교 내 성평등 교육, 22화.제로 웨이스트를 방송으로 내보냈다.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청소년, 환경, 쿼어 등 여러 사회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다. 공정성과 인권에 대한 생각은 모든 차별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함께 이어 달려 보아요!

냉우

냉우통차
2020-07-12 09:12

우리가 인간의 아름다움과자 하는 수천년의 욕망, 아름다운 얼굴에서 느끼는 호감과 호의를 제어할 수는 없으니 획일적 미의 기준에서 탈피해 다양한 미의 기준을 만들자는 의견도 좋지만, 결국 나아가야할 방향은 '사람을 판단할 때 외적 모습이 별 거 아닌 요소로 여겨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외양적 아름다움은 큰 의미가 없는, 그냥 자연스러운 신체의 일부분으로 두고 그 외의 것들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하려면 교육과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고 다시금 느낍니다. 저는 20대여성인데 오랫동안 여자 아이돌 음악방송을 아예 못 봤어요. 오래 여성으로서 제가 아무리 페미니스트로서 제 몸을 긍정하려고 해도 여성 아이돌의 외모와 몸매를 강조한 이미지들이 주는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정말 ... 그런 이미지들이 어디에나 있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어달리기'같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지고, 영향력 있어져야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에피소드도 정말 즐겁게 들었습니다. 두 진행자 분의 언어와 태도 덕분에인지 언젠가 이해받을 수 있을 거란 느낌을 주는 방송입니다. 날도 더운데 힘내시길 바라요!

ru

ruoto
2020-08-11 04:27

"오늘 우리가 이야기 함께 나눠줄 주제는 바로 미투운동입니다." 이 말이 무척 반갑고 마음이 울렁일 만큼 이를 주제로 한 대화들이 많이 부족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이야기들이 더욱 소중하고 뜻깊었습니다. '내가'가 아니라 '나도', '과거'가 아니라 '현재' 모든 것이 함축된 이 말을 듣고 마치 좋은 책 한 권을 읽은 것처럼 마음이 단단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장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경계도 따뜻하고 좋은 도움이었습니다. 이 에피소드도 누군가의 용기가 되길.

응원과 감동의 후기들

모든 프로그램이 그렇듯 제작 초반에는 한 회 한 회 만드는 게 살점을 뜯어내는 것 같은 고통이다. 그러나 한 편, 또 한 편이 완성되어감에 따라 프로그램은 하나의 생명체처럼 어느덧 자생력을 가지고 스스로 걷고, 달리기 시작한다. 이 걸

음은 너무 나태하지도, 너무 조급하지도 않아야 할 것이며 발걸음의 방향은 옳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의 우려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하고 있진 않은가?

전문가의 정보와 권위를 앞세워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계몽 주의적인 학습 방송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둘째, 대중의 속도에 발맞춰 가고 있는가?

페미니스트를 여성이 우월하다 주장하는 폭력적 반동분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연한 이 사회에서 몇 단계를 건너뛸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은가? 덧셈과 뺄셈을 스킵하고 미적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 개인 팟캐스트나 유튜브 채널이 아닌 공공파라는 공공재를 이용하는 만큼 누군가에게는 당연하고 친취적이지 않은 내용일지라도 대중에게 잘 전달되고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페미니즘은 여성의 것만이 아니다

페미니즘 방송을 하면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듣는다. 너무 편파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출연진들은 왜 다 여자인가? 페미니즘이 아닌 이퀄리즘에 입각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남성들의 역차별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는가?

페미니즘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지워진 여성들의 입장에서 살펴보기 시작한 최초의 학문이자 움직임이다. 우리가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모두의 역사는 남성의 역사(history)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힘주어 여성의 입장을 살펴야 권리의 균등한 분배가 이뤄질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힘주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직은 여성이기 때문에 화자와 청자가 대부분 여성일 수밖에 없는 건 우리의 의도가 아니라 현실 반영이다. 또한 남성의 역차별이라는 것은 그간 전 세계를 지배해온 남성 우월주의와 함께하는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전자를 해결하면 함께 없어질 것이다. 여성의 해방이 남성의 해방이기도 한 이유이다. 그러므로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얘기하고 싶다.

우리 함께 이어달려 보자고. 🏃‍♀️